

“아시아는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장”

설교자: 마삼락 박사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 9:37-38)

위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시아는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장”이라는 제목으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첫번째의 도전은 아시아는 우리가 쉽게 도전할 수 없는 큰규모의 대륙입니다.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60%가 넘는 22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큰 대륙입니다. 인구증가 추세로 볼 때, 앞으로 20년안에 아시아 인 구 중 10억의 어린이들이 태어나 18세가 넘게됩니다. 장차 10억이 넘는 18세의 젊은이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예 가장 적절한 나이의 젊은이들 인줄입니다. 저들의 마음의 문은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볼 때, 아시아는 세계산업의 중심지로 보기 보다는 복음전도의 중심지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줄 압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습니다.”

2) 두번째의 도전은 아시아 대륙은 그 모든면에 있어서 다양성이 있는 대륙입니다.

한대륙안에 3000여가지의 언어가 있으며, 12,500가지의 다른 문화와 인종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서로가 다른 다양성의 문화를 품고 들어가 기독교의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도전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어려운 장막을 뚫고 들어가야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습니다.

3) 세번째 도전은 아시아 교회의 성장의 동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교회가 성장한 곳은 아시아라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아의 기독교 교회는 급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에 9백만이 되던 교인이 오늘 날엔 1억4천만명의 교인으로 증가 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있는 곳에 도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한 교회로 하여금 선교하는 교회로 그 방향을 바꾸게하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교회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 것이며, 이것은 세계를 위한 것이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아시아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급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

04.28.1989

부처님이

와 탄생한 지역은 아시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인의 세계 어느 지역보다 아시아엔 불교인이 많습니다. 공자 또한 아시아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유교인<sup>이</sup> 많은 대륙이기도 합니다. 모하메트 역시 아시아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모하메트교인이 많은 대륙이 아시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아시아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 어느 대륙보다 기독교인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아시아 대륙이어야 하는데 사실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대륙보다 그 인구에 비하여 기독교인의 숫자가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아시아 대륙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도할 것인가 생각할 때 나는 한국의 기독교가 이 귀중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대륙 방방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아시아 대륙 안에 산꼭대기에도 골짜기에도, 도시에도 그리고 시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 "MISSION AS PILGRIMAGE"

Hebrews 11:8-16

Sang Hyun Lee

Both missionary outreach and conversion to Christ seem to involve a significant degree of "leave-taking"--that is, the act of leaving the comfortable and secure world to which one is accustomed. When missionaries went to Korea, they did not entirely leave behind their Western culture. But in many personal ways, they embarked on a journey away from the familiar and the comfortable. Also, when Koreans became Christians, especially in the early period, they left the familiar and the traditional and ventured into a new world.

In a way tonight we are celebrating the faith of our Korean Christian forefathers and mothers and missionaries from this country who, like Abraham, obeyed when they were called and went out into the wilderness, and who were willing to live as strangers and exiles on the earth, looking forward to the City whose Builder and Maker is God. Their acts of "leaving home" often brought them costly sacrifices, especially in their personal lives. But without their willingness to live as "pilgrims," Korean church would not have become a reality.

I believe we are all being called today to embark upon new pilgrimages. Korean immigrants are being called to leave behind them the first-generation immigrants' typical tendency to cling to their ethnic enclaves and to face up to their new American realities. Not that we should give up what is good in our Korean heritage; to do so is neither desirable nor possible. But rather that we must now be willing to live on the boundary as Korean-American Christians. Only such a willingness to live as pilgrims will enable us to minister to our own second-generation children who are very much American as well as Korean, and also to fulfill our calling to proclaim the Gospel in our newly-adopted American context. May I also dare to say that our "white" American brothers and sisters are also called to live as true pilgrims who are willing to leave behind the comforts of their own cultural home, in order to be with those who are "outside the gate." Many Americans already feel they are "outside the gate", out in the wilderness. Then, this is a divine calling. Mission is a pilgrimage.

제가 존경하는, 한 경직 목사님을 소개하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은 한국이~~  
~~남은 세계적인 목회자요~~ ~ 교회 지도자 이십니다. 한 목사님은  
1929년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 하셨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는 한 목사님을 동문의 한 분으로 모신 것을,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 3일 <sup>열렸던</sup>에 프린스턴 신학 동창회에서  
네 분 한 국인 동창들 ~에게 특별 공로 상을 ~~드림~~ 드렸습니다.  
한 경직 목사님을 비롯 하여, 백낙준 박사, 백형봉 박사,  
김려준 목사님 - 네 분을 표창 하였습니다.

표창식에서 프린스턴 신학교 학장인 Gillespie  
박사는 한 경직 목사님 ~~에게~~ ~~드리는 표창장어~~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적을 다음과 같이 말 하였습니다.  
입니다.

" 프린스턴 신학교는 1929년에 졸업한 한 경직 목사님,  
한국이 남은 <sup>세계</sup> ~~주요~~ ~~역~~으로 존경을 받는 교회 지도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광로 교회인 서울 영락 교회의  
<sup>(founder)</sup> 창설자요 원로 목사입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왔을 때,  
가난한 자를 도움고, 교사와 과부들, 그리고 피난민  
들은 <sup>contribution</sup> <sup>be in</sup> 위한 많은 봉사 사업에 공헌 하셨습니다.

